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문화권력과 패션에 대한 연구

고 윤 정* · 김 민 자**

코오롱 패션산업 연구원 부교수*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f Cultural Power and Fashion in the Modern and Post Modern Eras

Youn-Jung Ko* · Min-Ja Kim**

Associate Professor, Fashion Institute of Kolon*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09. 10. 27, 심사(수정)일: 2009. 12. 17, 게재확정일: 2009. 12. 28)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ubjects of cultural power of the modernism and post modernism eras, and analyze how the change of power and subjects influenced fashion throughout the history from the microscopic perspective, and thus to explain the social relationship of the fashion phenomenon. The study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the post modernism era which was being formed centering around Europe that was pursuing Haute Couture and formal masculine suits ended and the post modernism era started, America became the center of the world power, and the American equalitarianism and growing wealth among the general public spread over the world, and as a result, the ready-made clothes were propagated over the world, and various subcultures came to have multi-national tendency in the New Media society. Second, in the modernism era, the high class, whites, males, and the pre-existing powerful class were the subjects of cultural power. Although this changed in the post modernism era, as some of power moved from the high class to the middle class, the economically affluent general public, still the western world, males, and whites held the center of power. However, later, females, youths, the third world nations, and so on emerged as minor power, and when the New Media society started, the structure developed so that everyone can share cultural power.

Key words: culture power(문화권력), fashion system(패션체계), modernism(모더니즘), postmodernism(포스트모더니즘)

I. 서론

패션은 문화 트렌드로 권력층에 의해 끊임없이 생성되고, 시대의 미의 상징으로 의미 지어지고, 대중에게 확산된다. 권력에 의해 유행은 무의식적으로 요구되어진다. 대중은 소비를 통하여 권력에의 동조하게 된다. 즉 소비에 의한 선택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통제되고 조정되고 있으며, 사회 내부의 문화모델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사회에서의 문화 모델은 그 시대 권력층의 이상형을 대변하며,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변화한다. 역사적으로 사회의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권력은 권력층을 바꾸어 이동하였으며, 권력층이 이동함에 따라 패션도 변화하고 있다.

먼저 모더니즘 시대는 제국주의적 영향 아래, 강력한 유럽의 절대권력의 시기이며 개인의 관점에서는 특권층의 권력, 즉 상류층, 백인, 남성, 기득권층의 제한된 계급에 집중된 시대이다. 특히 모더니즘 사회는 복식사적 측면에서 처음으로 패션이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시기이며, 상류층의 문화는 자신만의 독특하고 우아한 미의 추구로 화려함, 섬세함, 우아함, 독창미를 중심으로 한 오프 꾸트르 세계의 생성과 발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20세기 후반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오면서 절대적 가치와 상류층의 특권 문화에 대항하는 하위 문화와 대중문화가 탄생하였다. 여전히 포스트모더니즘의 대중 소비와 물질만능사회에서도 권력은 다분히 부의 소유를 지칭하고 있었지만 인본주의적 영향으로 권력의 원천이 다양화되었다. 합리주의 사고는 패션에 있어서 오프 꾸트르의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며, 경제적 풍요와 더불어 이루어진 기계화, 대량화의 물결 속에 프레타 포르테의 시대가 열렸다. 대중 문화, 소비문화의 시대에서도 서구적 미와 이상형은 전반적으로 공유되는 이상형으로 받아들여졌고, 권력의 피라미드에 따라 서열이 정해졌으며, 특히 미국은 강력한 경제적, 정치적 파워를 가지고 있었으나 주류 권력에 대한 대항으로 아시아, 청소년, 여성 등 하위 문화 계급의 투쟁이 전개되어 자신만의 권력을 형성해갔고, 그 결과 모더니즘 사회의 일체된 권력은 포

스트 모던시대에 이르러 해체됨으로써 권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더욱이 20세기 후반 정보사회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권력층이 공존하고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융합되는 퓨전 현상이 문화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시대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연장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그 특성이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이 시대 권력 구조는 융합의 모습으로 메이저 권력과 마이너 권력의 경계선이 불분명해져 모두가 공존하고 있다. 폭넓고 빠른 정보의 공유로 개인에게 다양한 선택과 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개별적인 취향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를 공유하는 열린사회에서 다양한 스타일과 패션이 공존하는 가운데 개인이 중요해지는 시대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회변화와 패션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서 김민자(1998)는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을 반미학과 열린 패션으로 분석하였고,¹⁾ 문신애(2004)는 패치워크를 중심으로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을 분석하였다.²⁾ 박은경(2001)과 이봉덕(2002)은 20세기와 21세기 전환기에 있어 기술발전에 따른 패션의 미학적 특성을 연구하였다.³⁾ 최호정(2007)은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복식 문화를 통해 현대패션의 글로벌·구조적 하이브리드 특성을 규명하였다.⁴⁾ 이민선(2003, 2006)은 권력구조와 패션의 관계를 성적 표현과 남성복식의 측면에서 고찰하였고,⁵⁾ 안선경(2001)은 한국적 복식문화를 미국의 영향과 권력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⁶⁾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본 연구의 초점인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패션의 변화를 단편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시대의 문화권력의 주체를 살펴보고, 권력과 주체의 변화가 패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지나간 역사를 통해 미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패션 현상의 사회적 관계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헌연구는 기본적으로 권력, 문화, 사회, 패션에 관한 국내외 단행본과 논문 등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사회학, 정치학, 미학 등의 전문이론 서적의 연구 또한 진행

하였다. 이는 권력과 패션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모더니즘 사회와 포스트모더니즘사회의 권력과 패션에 대한 사적 연구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문화권력에 따라 시대를 구분하는데 20세기 예술양식에서 보편적으로 쓰여 지고 있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을 사용하여,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을 모더니즘시대로, 20세기 후반을 포스트모더니즘시대로 구분하였고, 20세기 전후반의 분류는 문화 예술에서 대중문화의 확산의 시기라 간주되는 1960년대를 기점으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으로의 전환으로 보는 시각이 많으므로⁷⁾ 이에 따랐다. 이에 더하여 21세기 정보사회에서의 패션변화를 포스트모더니즘의 연장선인 뉴미디어시대로 파악하고 그 특성을 차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대구분에 따라 패션에 중점을 두어 문화권력의 주체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미시적 관점에서 사회계층, 인종, 성별, 연령, T.P.O를 중심으로 문화권력의 주체를 파악하고, 이들로 인해 파생된 패션은 어떠한 것인지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모더니즘 사회의 문화권력과 패션

1. 문화권력의 주체

19세기 후반은 세계적으로 제국주의적 영향력 아래 존재하였던 시기로 유럽제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걸쳐 광범위한 식민지를 건설에 노력하였고, 국제적으로 경쟁하였다. 제국주의에서는 서구 특히 유럽의 문화 우월성을 가치로 표방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문화를 식민지국에 강요하는 과정을 통해 이입되었다. 즉 이 시대의 권력은 통상적인 권력의 시각으로 권력자가 강제력을 통하여 예속된 자의 의지에 반하여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는 힘으로 이해된다.⁸⁾ 모더니즘 사회에서 개인들은 사회 질서 안에서 힘과 신체를 길들이는 세심한 전술에 의해 만들어졌다.⁹⁾

1) 상류층, 백인, 기득권층의 시대

모더니즘 시대의 권력의 중심에는 부르조아가 있

었으며, 그들은 경제적 부로 인해 권력을 획득한 계급으로 경제적 권력을 중심으로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또 다른 계층과의 차별을 위해서 과시적 소비를 지향하였다. 그러기에 이들은 오피 꾸트를 선호하였으며 더욱 다른 계층이 모방할 수 없는 화려하고 수공예적인 면으로 발달해 더욱 과시적 소비를 부추겼다.

모더니즘 사회는 기본적으로 유럽, 상류, 백인, 남성, 기득권층의 절대권력의 시대이다. 즉 백인 문화가 가치의 기준이 되어 있는 사회, 인종적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문화가 똑같이 적용되는 사회는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획일주의 사회이다.¹⁰⁾ 또한 이 시기는 대중매체의 탄생시기로서 대중매체는 개인의 삶의 방식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로써 어느 정도의 사회적 통제와 더불어 대중을 현혹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¹¹⁾

2) 남성의 절대권력 시대

19세기 이후 남성성은 공적 영역에서의 신체적 효율성과 엄격한 외모로 제한된 반면, 여성성은 신체적 매력과 장식적 외모로 이분화 되는데, 이는 결국 남성 지배와 여성종속이라는 권력관계로 합법화되었다.¹²⁾ 또한 산업혁명 이후 합리주의 사고에 따라 남성의 본성은 신체가 아닌 그들의 이성에 주어졌으며 남성은 이성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자율적인 주체로 활동하기 위해 이에 적합한 성별 정체감을 획득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자율적이고 강하고 지배하는 남성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강화되었다.¹³⁾ 남·녀를 구분 짓는 이분법적 사고로 그들의 권력위치를 공고히 하였다. 모더니즘 문화의 본질은 남성적, 생산적, 창조적인 것이었으며,¹⁴⁾ 이는 절대적 가부장제에 기초한다.

권력층인 남성들은 여성과의 패션의 차이를 명백히 했다. 남성들의 성 범주는 그들에게는 권력을 의미한다.¹⁵⁾ 그들은 자신을 '남성'이라고 정의하는 모든 것들에 큰 가치를 둔다. 반대로 여성에게 하여금 여성스러움을 강요하였다. 이 시기의 여성들은 외모를 가꾸도록 권고 받았으며 아름다워지는 것이 사회에

대한 그들의 첫 번째 의무라 생각하였다.¹⁶⁾ 즉 지배 자로서의 남성과 피지배자로서의 여성이다. 이 시기는 명백한 이분법적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로 규정될 수 있으며, 이는 곧 남성의 절대 권력 시기를 의미한다.

3) T.P.O: Formal, Informal의 고정관념

모더니즘 시기에는 시간, 장소, 때의 구분이 확실하였다. 공식석상에서는 남성도 여성도 정확히 갖춘 패션을 차려 입어야만 했으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만 허락되는 패션도 있었다. 특히 상류층의 문화는 엄격한 T.P.O의 경계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당연히 문화의 하나인 패션에도 적용되어 때와 장소, 또 시간에 따라 Formal, Informal의 차이를 명확히 하였다. 패션을 보면, 유사한 느낌이 들고 있으나, 그 안에는 그들만의 엄격한 룰이 적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2. 문화권력주체에 따른 패션

유럽은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 후 그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이 다른 세계에 비해 우월하다는 의식을 심어주려 하였다. 패션을 포함한 유럽식 문화는 근대화의 표상으로 인식되어졌으며, 특히 식민지국의 지배 계층에게 요구되어졌다. 전통적인 것은 비근대적, 원시적으로 취급되었으며, 유럽식 문화는 세련되고 엘리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1) 사회계층

모더니즘 시대의 권력의 중심에는 부르조아가 있었으며, 그들은 경제적 부로 인해 권력을 획득한 계급으로 경제적 권력을 중심으로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부를 중심으로 권력을 획득한 부르조아들은 그들의 신분이 세속되는 귀족이나 왕족이 아닌 획득한 계급이었기에 더욱 계급상승의 욕구와 함께 상류층의 패션을 모사하여 입기 시작하며, 더욱 화려하게 치장하였다. 이것은 더욱 오프 꾸트르적인 모드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하류층은 영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궁핍한 생활고로 말미암아 패션에 관심을 둘 여유 역시 없었다. 즉 이 시대는 서민복과 상류층의 패션의 차이가 명확해, 그들의 패션을 통해 한 사람의 계층을 판단하기에 충분하였다. 중류층의 일부 사람들 중 계층상승을 꿈꾸는 사람들은 상류층의 복식을 모사하기를 즐겼으며, 이는 더욱 상류층 패션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림 1〉¹⁷⁾과, 〈그림 2〉¹⁸⁾에서 볼 수 있듯, 상류층의 패션과 중류층의 패션은 그 화려함과 디테일적인 면에서는 차이를 보이나, 거의 유사한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하류층의 패션은 이러한 것과는 무관한 패션으로 나타나지는데, 이들은 상류층과는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생활고로 인해 패션에 신경을 쓸 시간도 여유를 갖지 못하여 working dress를 입었는데, 〈그림



〈그림 1〉 19세기말 상류층 패션
20세기의 모드, 2001, p. 43.



〈그림 2〉 1902년 런던의 중류 처녀들
세계 패션사 2, 1997, p. 150.



〈그림 3〉 하류층 남녀의 복식
Through the Looking Glass, 1989, pp. 17-18.

3)¹⁹⁾에서 보여지듯이 남녀 모두 수수하고 디테일이 없는 패션이다.

모더니즘 사회의 패션은 상류층을 확실히 차별시켜 주는 도구의 역할을 겸하였으므로 베블린의 과시적 소비²⁰⁾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패션의 변혁은 늘 위로부터 즉 지배계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지배계층만이 그 경제력에 힘입어 패션을 바꾸고 장식에 힘쓰거나, 고가인 천을 사용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차별화하였던 것이다.

20세기 초 영화의 등장과 함께 모드의 국제적 교류가 가속화되었으며 영화배우는 패션의 리더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²¹⁾ 할리우드는 글래머와 멋스러운 옷 입기의 결정체를 보여주었고 여배우의 영화의상은 적극적으로 상업화되었다.²²⁾ 스타들은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유럽 상류층의 오프 꾸트르를 답습하여 할리우드의 스타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또한 할리우드는 영화를 통하여 특수한 계층의 취향을 모든 남성과 여성들에게 일반화시켰는데, 대부분의 의상은 일반 대중화되기에는 너무나 사치스럽고 수준이 고급스러운 의상²³⁾이 많았다. 즉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패션은 모두 상류층 즉 권력층의 모드의 재현이어서 대중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 할리우드 영화의 의상들은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와 페티코트, 보석과 장신구 등을 사용해 영화 속 여배우들을 일반인과는 차별된 화려한 존재로 만들었다.²⁴⁾

2) 인종: 백인패션

유럽의 절대적 권력시대인 모더니즘 사회는 백인 우월주의를 표방하였다. 유럽의 제국주의는 패션에서도 서구적 신체를 이상적인 미로 성립하고, 이상화된 유럽인의 이미지를 양산하고, 이를 타 인종의 신체 위에 각인함으로써, 타 인종들에게 도달할 수 없는 욕망으로 인한 소외감을 낳게 하였다. 따라서 전통의상은 미개인이나 덜 발달된 인종이 착용하는 불편한 패션으로 치부하였으며 이에 자신들의 패션에 자부심을 갖고 근대화의 의미를 넣어 타민족에게 강요하였다. 이러한 패션은 남성 패션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근대화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파된 테일러드 슈트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3) 성별

모더니즘 사회에서 규율은 이 시대의 패션 특히 남성 패션에 있어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들은 우월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패션을 사용하였다. 부르조아 남성의 사회적 정당성과 남성지배와 여성종속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옹호를 통해 사회 내에 하나의 지배적 성을 구축하였다.²⁵⁾

20세기의 시대적 변화 가운데, 절제된 테일러링의 전통은 점차 일상적인 클래식룩으로 정착되었고, 테일러드 슈트는 부르조아 남성생활의 기본원리인 성실성, 유능함, 단정함, 자제력, 극기를 주장하는 동시

에 남성의 사회적 정당성과 이데올로기적인 변화를 구축하였다.²⁶⁾ 남성적 품위는 남성이 표준화와 그의 육체에 대한 통제를 통해 자신을 주장하는 방식의 하나이다. 남성의 슈트는 권위적이며 강건한 남성성을 표현하고 있고,²⁷⁾ 눈에 띄고 스마트한 차림은 복잡하지도 다양하지도 않다. 즉 남성 정장을 기본으로 형성되는 일률적인 남성패션은 남성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구별짓기 전략이었다.²⁸⁾

일하지 않는 여성은 이 시기의 절대 권력층 즉 노동의 필요가 없는 여성임을 과시하는 것으로 하나의 과시적 소비의 행태를 띄고 있다. 또한 당시의 여성들에게, 유행이라는 획일화된 패션을 수용하는 것은 사회적 의무를 따르는 행위를 의미했다. 즉 여성은 패션을 통해 매력적인 여성성과 가족의 사회적 지위, 명백한 순종과 가사를 경영할 능력, 다산의 건강성을 상징적으로 표출하였다.²⁹⁾ 여성들은 남성에게 종속되어진 자로써, 남성들의 권력, 부, 지위를 보여주는 상징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즉 모더니즘 사회의 여성은 남성의 권력을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였으며 사회적 불평등에 길들여져 있는 존재였다.

수수한 남성패션과는 뚜렷한 대조를 보이는 여성 패션은 코르셋과 크리놀린, 버슬 스타일의 극도로 화려하고 장식적인 로맨틱 룩으로, 이는 부르조아 남성의 부와 지위를 상징하는 수단이었으며 신체적 억압과 부동성을 통해 사적 영역에 머문 여성의 종속적 위치를 드러내었고, 화려한 장식과 성적 암시를 통해 관능성과 동시에 육체적 재생산 능력을 암시하였다.³⁰⁾ 그러나 초기의 여성 해방 운동은 이 시기에 시작되었으며 이것은 최초의 여성 테일러드 슈트가 보급되면서 조금씩 남녀평등의 개념이 전파되고 있었으며 이는 다음 세대에서 구체화되어진다(그림 4).

4) T.P.O: Formal, Informal의 고정관념

격식이 중요한 상류층 문화 시대인 모더니즘 시대에는 시간, 장소 때에 따라 패션을 달리 하였다. 공식적인 자리나 저녁의 파티에는 꼭 입어야 하는 패션이 존재하였으며, 비공식적인 패션은 아주 격식있는 차림에 비해 조금 소프트 해진 면이 있으나 여전히 정장에 가까운 차림이었다. T.P.O.의 개념이 철저



〈그림 4〉 19세기 말 테일러드 슈트
20세기의 모드, 2001, p. 13.

히 되면서 패션은 기능별로 세분화 되었으며, 이는 특히 여성복에서 두드러지는데, 그 예로 평상복과 이브닝웨어는 뚜렷하게 스커트 길이가 달라졌다. 패션은 파티 드레스, 타운 웨어, 서츠 웨이스트 원피스, 홀터넥 이브닝드레스, 나이트 가운, 운동복과 운동관람복 등 다양하게 세분화되었고 무엇보다 운동복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였다.³¹⁾

3. 소결

20세기 초반의 모더니즘 사회에 있어서의 유행의 형성은 상류층에 절대적인 의존도를 지닌다. 중류계급의 사람들은 상류층의 패션을 모방함으로써 계급 상승의 욕구를 표현하며 그들이 모방하게 되면 상류의 권력층은 구별추구를 위해 또 다른 패션을 시도한다. 유행계급(leisure class)의 과시적 소비(conspicuous consumption)가 가장 뚜렷하게 보여지는 사회라 하겠다. 이 시기는 유럽, 상류층, 백인, 남성, 기득권층의 일치된 형태의 절대적 문화권력의 주체에 의해 패션 또한 이들의 패션에 권력이 집중되며, 그러한 그들의 패션은 오프 푸트르로 명칭할 수 있다. 그 중 단연 힘의 중심에 있는 것은 남성들의 테일러드 슈트였으며, T.P.O.의 구분이 명확하여 패션에서도 구분이 확연하였던 시기였다(표 1).

〈표 1〉 모더니즘 사회의 문화권력주체와 패션

관점	권력의 주체	패션
사회계층	상류층 스타	상류층: 오프 꾸트르 중류층: 상류층의 모방 하류층: Working dress
인종	백인우월주의	테일러드 슈트
성별	남성의 절대권력시대	테일러드 슈트, 오프 꾸트르 패션
연령	기득권층	정장을 중심으로 한 테일러드 슈트
T.P.O	Formal, Informal의 고정관념	Formal: formal dress Informal: sport wear, day dress, night wear 등

Ⅲ.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의 문화권력과 패션

1. 문화권력의 주체

세계대전과 냉전시대를 거쳐 미국은 막강한 파워를 지닌 국가로 부상하게 된다. 유럽의 제국주의 시대에서, 미국과 소련의 양 강대국에 이데올로기를 위시로 한 냉전시대를 지나, 새로운 미국 제국주의가 탄생되었다.³²⁾ 능력주의와 기회 균등을 강조하는 평등주의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비약적 발전은 정부권력과 협력한 대자본가, 대기업의 탄생을 가져왔다. 이들의 권력은 경제적인 권력 뿐 아니라 정치적 권력 즉 부와 지위의 획득과 성공을 의미하였다. 대기업이 주축이 되어 일구어 낸 미국 산업의 힘이 전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 것은 사실이었으며 미국 외교 정책의 실행을 뒷받침해 주는 거대한 군사력 역시 이러한 산업의 힘이 떠받치고 있었다.³³⁾ 물질주의와 소비문화의 미국사회는 획득 가능한 부라는 측면에서 베블린의 과시적 소비를 잘 보여주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는 서구사회가 이른바 대량 소비사회로 진입한 시기이며 이때부터 일반 대중들은 부르주아 들처럼 자동차와 텔레비전을 소유하게 되었던 시기이다. 쉽고, 편리하고, 실용적인 민주주의적 성향의 디자인 발전과 물질문화의 전시를 통해 자신이 성취한 부와 정체성 변화를 과시하려는 소비문화의 발전은 모두 미국사회의 특성이다.³⁴⁾ 이러한 대중문화는 절대 다수의 대중이 수용하는 그 시대의 가장 일반

적이고 보편적인 문화 형태로서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영화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어 형성된 생활양식이나 사상의 새로운 경향이다.³⁵⁾

세계 대중 매체의 획일성에 대한 반발로 많은 나라와 문화, 지역에서 다시금 자신들의 고유한 소리를 외치기 시작한다. 문화적 전통에 대한 관심, 민족주의로의 관심 역시 그러한 반발 심리의 작용이라 할 수 있다. 민족주의는 세계 정치의 강력한 원동력이며, 그 어떤 힘도 끌어낼 수 없는 충성심을 동원하는 원동력이 되어 왔다.³⁶⁾ 다양한 하위문화 세력이 조금씩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아감에 따라 이들은 문화전반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패션에도 영향을 끼쳤다.

1) 사회계층

미국이 중심이 된 대중사회로의 변화는 일반인인 다수의 중류층에게 가장 많은 변화를 주었다. 대량생산의 사회적 움직임은 많은 수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왔으며, 결과적으로 중류층인 일반인에게도 경제적 여유소득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여유소득은 대중문화, 소비문화의 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중류층의 대중문화가 이 시대의 문화권력의 주체라 하여도, 상류층은 그들만의 고급문화를 지속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마이너 권력으로 다양한 하위문화계층의 등장과 저항은 그들만의 문화를 표출하기 위한 다양한 대중문화를 등장시켰다.

2) 인종

권력의 중심이 상류층에서 중류층으로 이동하였다는 하나, 유럽에서 미국으로의 이동에 중심을 두었던 만큼, 여전히 인종적 구분에 있어서는 백인중심의 사회 즉 백인 우월주의가 여전히 팽배한 사회이다.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백인의 범주에 들지 않는 모든 민족집단-아랍인, 아시아인 등-에 대해 편견과 차별을 드러내고, 인종 외에 종교나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미국에서 비주류로 여겨지는 비개신교계 크리스티교(가톨릭, 몰몬교 등) 신자나 동성애자, 여성주의자에게도 적대적이다.³⁷⁾ 그러나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이 조금씩 다른 국가에서도 획득되자 다양한 국가들의 저항이 시작되었다. 일본, 중국, 우리나라를 위시로 한 아시아 뿐 아니라 오일을 무기로 한 아랍 세계 역시 그 힘을 비축하고 있었다.

3) 성별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는 경제적 부의 소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거대 권력 안에 있었으며, 이들의 중심에는 여전히 남성이 있었다. 의무와 책임은 막중하였고, 그만큼 권리와 힘을 겸비하였기에 남성은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있었으며, 문화권력의 강력한 주체였다. 하지만 페미니즘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또한 사회 문화적 변화와 더불어, 대중문화의 확산은 상대적으로 피지배계층이었던 여성들의 변화도 촉구하였다.

4) 연령

이 시대의 권력주체는 분명히 남성이고,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기성세대이다. 경제적 소유는 권력의 척도가 되었으며,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나 경제적 능력을 아직 갖지 못한 어린이들은 남성이라 할지라도 권력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기성세대가 가진 획일적이고 진부한 권력에의 도전으로 영파위가 대두되었다. 196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기성세대에 대항하려는 반문화 운동이 급진화되기 시작했고, 대중음악의 상업적 성장이 거듭되어 런던에서의 클럽 락과 미국의 디스코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개성을 강조하는 젊은 세

대가 기존의 관념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그들만의 스트리트 스타일을 창조하였다.³⁸⁾

5) Formal, Informal 고정관념의 와해

T.P.O의 의미에서 모더니즘 시대의 엄격한 경계가 어느 정도 무너지고 있다. 형식과 격식에 억매었던 과거에 비해, 일반 대중이 중심이 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는 그 차이가 한층 자유를 부가하였다. 직장에서도 복장 자율화 운동을 하여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넥타이를 매지 않고 정장을 입지 않고 출근하는 문화를 시도하였으며, 주 5일제 근무 등 여유시간과 취미를 즐길 시간이 늘어감에 따라 캐주얼의 영역이 확대되어갔다. 대중사회에 맞추어 스포츠 역시 대중화 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스포츠 웨어와 캐주얼웨어 역시 대중화 되어갔다.

2. 문화권력주체에 따른 패션

이 시대는 패션에서도 대량생산에 따른 물질문화, 소비문화의 시기이다. 패션은 더 이상 상류층의 특권은 아니며, 구매력을 갖춘 압도적인 인구의 대중의 대두와 더불어 대중매체와 판매방식의 다변화와 같은 사회체계의 변화로 말미암아 소수의 패션 엘리트가 아닌 대중을 위한 패션시장이 등장하게 되었다.³⁹⁾ 즉 패션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하나의 상징적 기호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1) 사회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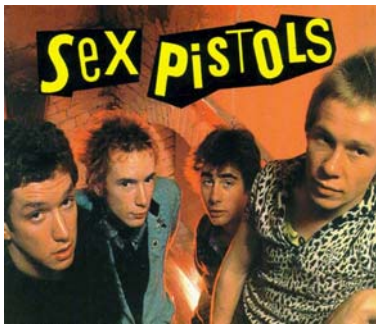
미국의 대중문화, 소비문화에서 가장 큰 문화권력의 주체가 된 기성의 중류층들은 오프 꾸트르 대신 프레타 포르테, 즉 기성복을 선호하였다. 이 시기에 들어와 기성복은 과거의 저급하고 하찮은 패션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사랑 받는 대표적 패션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상류층은 최고급 패션의 표상인 오프 꾸트르를 그들만의 고급문화로 계속하였으며, 슈퍼스타들의 레드카펫용 드레스와 <그림 5>⁴⁰⁾, <그림 6>⁴¹⁾과 같이 최상류층인 재클린 케네디, 그레이스 켈리, 다이애나비 등이 패션니스트로 떠오르면서 문화권력의 주체가 되었다.



〈그림 5〉 그레이스 켈리
<http://blog.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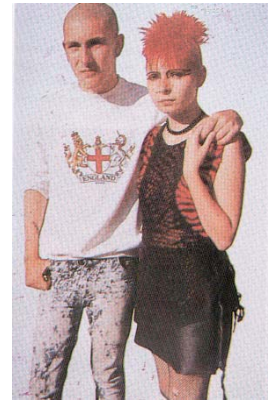
〈그림 6〉 다이애나 스펜서
<http://blog.naver.com/>



〈그림 7〉 섹스 피스틀스
<http://imagebingo.naver.com/>



〈그림 8〉 펑크스타일
 서양복식문화사, 2001, p. 395.



〈그림 9〉 펑크스타일
 서양복식문화사, 2001, p. 3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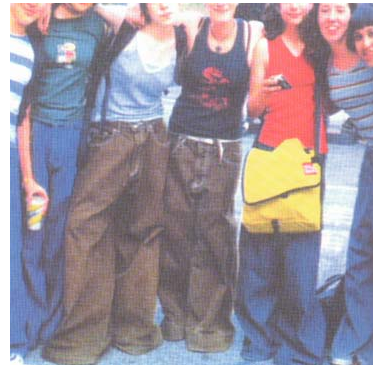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에 걸쳐 런던, 뉴욕, 파리 등지에서 발생한 청소년 문화는 반문화적 성격의 문화혁명으로서 구체화 되었으며 그 문화의 형성 배경은 대중음악이었다.⁴²⁾ 60년대 70년대의 락 음악은 이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으며 이는 히피, 펑크 패션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펑크는 〈그림 7〉⁴³⁾의 섹스 피스틀즈(Sex Postols)라는 영국의 그룹에 의해 탄생하였으며 이들은 나치 모양이 장식된 티셔츠를 입고 선동적인 분노와 혐오스런 행동을 표출하여 언론의 지탄을 받았다.⁴⁴⁾ 〈그림 8, 9〉⁴⁵⁾는 젊은이들의 펑크스타일을 보

여주고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예쁨을 내던지고 거칠고 위협적이고 두려워 보이는 모습을 추구함으로써 지배문화의 여성상과 고상한 취미와 우아한 행동의 위선을 지적하였다.⁴⁶⁾

80년대 초반에는 운동복과 운동화가 빈민가에서 유행을 했고, 그 이후에는 힙합 패션으로 전개되어 세계적인 유행을 낳았다. 미국 뉴욕의 흑인 할렘가에서 10대들에 의해 흘러나온 이 특별한 문화 조류는 1990년대 들어가면서 그 자유로움과 반항 정신을 공유하고, 자신들만의 문화를 창조하려는 전 세계 신세대들을 중심으로 패션, 춤, 노래, 의식까지도 지배하



〈그림 10〉 MC 해머
<http://blog.naver.com/>



〈그림 11〉 90년대 힙합 패션
 FASHION 현대패션 100년, 2002, p. 298.

는 힙합 스타일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났다(그림 10)⁴⁷⁾. 이는 구속받기 싫어하는 젊은이의 자유로운 감성을 반영하듯, 험렁하게 큰 셔츠와 흘러내릴듯한 통이 큰 바지가 스타일의 특징을 이룬다.⁴⁸⁾ 〈그림 11〉⁴⁹⁾은 젊은 여성들의 힙합 패션을 보여주고 있다.

2) 인종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귀족적 백인주의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백인주의로의 바뀜이 있었으나, 여전히 백인은 타 인종들보다 우월한 인식을 스스로 각인하고 있었으며, 이는 인종차별주의로 나타났다. 이들 역시 당 시대를 살아가는 주체로써 미국의 일반 백인들은 기성복을 선택하여 착용하였고, 블루 칼라가 아닌 화이트 칼라임에 자부심을 가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지의 전통의상은 점차 일반대중의 평상복으로는 착용되지 못하고 의례복으로서만 그 명맥을 유지하였던 것이 동양의 형태미나 아프리카 지역의 원시성에 향수를 느끼면서 이들 지역 전통의상에서 영감을 얻은 에스닉 패션이 등장하였다.⁵⁰⁾ 오리엔탈리즘 패션은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지역 민속의상에서 모티브를 얻은 디자인이다.⁵¹⁾ 일본 디자이너들의 활약으로 인해 재패니즈 룩(Japanese look)이 유행하였으며 비구조적 형태의 빅 룩과 레이어드 룩으로 서구 패션에 정착되었다.⁵²⁾ 그리고 동양의 또 다른 힘, 즉 중국이 부상하였고,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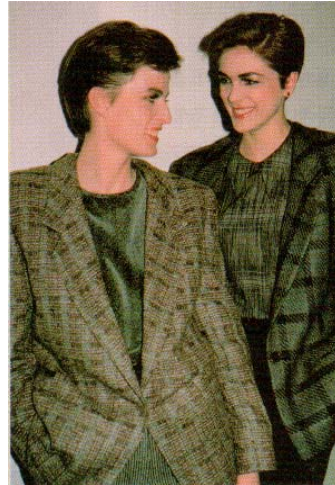
국제 미국인 디자이너들의 활동해 더욱 아시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중동의 디자이너인 후세인 샬라얀(Hussein Chalayan)의 부각도 패션에서의 중동의 영향력에 영향을 미쳤으며,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미구엘 아드로버(Miguel Adrover) 등은 중동문화를 주제로 한 패션디자인을 선보였다.⁵³⁾

3) 성별

권력의 중심에는 남성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패션은 남성의 전유물로 상징화된 정장이었으며, 그들의 문화권력과 함께 이 시대의 메이저 패션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2〉⁵⁴⁾와 같이 여성들은 직장에서의 남녀평등을 주장하기위해 처음에는 남성들의 패션을 그대로 차용하여 입음으로 페미니즘 운동을 시작하였다. 80년대 여성들은 파워 슈트를 착용함으로써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능동성과 능력 있는 여성 이미지를 표현하였다.⁵⁵⁾ 또한 하류층과 여성해방론자들은 상류층 남성의 권력 과시적 패션을 조롱하고, 바지를 찢거나, 착색을 시도하여 구식 옷처럼 만드는 등의 장식으로 하류층의 힘을 보여주기도 하고, 신분을 과시하지 않은 빈티지룩을 유행시킴으로써, 그들의 무력하고 의존적인 이미지 자체를 아름다운의 표상으로 제시하였다.⁵⁶⁾ 〈그림 13〉⁵⁷⁾은 1984년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발표한 매니쉬 슈트이다. 여기에서 보여지듯 남성의 패션을 그대로 차용한



〈그림 12〉 영국의 페미니스트 복식
히스토리카 세계사 8, 2007, p. 119.



〈그림 13〉 1984년 아르마니의 수트
서양복식사, 2006, p. 334.

듯한 록인 매니쉬 록이 유행을 하였다.

이렇듯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지위와 경제력을 획득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과거의 신체를 구속하는 인위적인 실루엣 대신 건강한 신체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건강미는 전통적인 여성의 성역할, 수동성, 종속성을 거부하고 능동적이고 자아의지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인 여성상으로 발전되어 갔으며 이는 과거 종속적인 여성성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였다.⁵⁸⁾

4) 연령

중류층에게 패션을 선택하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중장년층이 되었다. 중장년층의 직장인들인 일반 다수의 대중은 이제 그들의 패션을 백화점 등을 통해 구입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모드는 당연히 기성복 중심이었다. 입센 로랑, 피에르 가르뎅, 앙드레 쿠라쥬 등 많은 꾸트르 디자이너들이 합류해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을 발표함으로써 중하류층의 모드만이 아닌 상류층도 함께 입는 패션에 있어서의 권력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는 영패션의 대두와 함께 스트리트 패션이 등장하였다. 다양한 스트리트 패션은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던 과거의 미의식에 충격을 주는 것이었고 기존의 미의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감

각을 던져주는 촉매제로서 일반예술이나 패션에 신선함을 던져주었다.⁵⁹⁾ 이는 기존 메이저 권력의 저항으로 정장에 반하는 캐주얼, 남녀의 구분이 없어진 유니섹스 패션으로 연결되며 이를 영패션이라 할 수 있다.

젊은이들은 기존의 전통과 패션을 거부하였다. 청소년 집단은 성인 집단과 구별되는 자신들 특유의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흔히 그들의 옷차림이나 머리모양, 말투, 문화적 취향 등을 통해 표현된다. 그러나 그들은 소속 학교, 계층, 성, 지역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진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결코 단일한 집단으로 볼 수 없다. 즉 청소년집단은 성인집단에 대해 차별적인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내부에는 계층과 연령, 성별에 따른 다양한 하위집단이 존재하며 그들은 문화적으로도 공통된 특성과 차별성을 함께 드러낼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⁰⁾ 패션에 있어서는 이러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여지껏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정장과 넥타이 등 획일화되고 격식화된 복식에 대한 반기로 티셔츠와 청바지가 등장하여 남녀 모두에게 크게 사랑을 받았다. 〈그림 14〉⁶¹⁾와 〈그림 15〉⁶²⁾를 보면 남녀의 젊은 학생들이 모두 티셔츠와 청바지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14〉 런던의 스트리트 패션
20세기의 모드, 2001, p. 139.



〈그림 15〉 진을 입고 락앤롤을 추는 젊은이들
20세기의 모드, 2001, p. 139.



〈그림 16〉 제임스 딘
<http://www.hancutgallery.com/>



〈그림 17〉 마론 브란도
<http://www.slrlcup.net/>

이러한 청소년들의 모드는 유니섹스 모드의 발전을 가져온다. 유니섹스 모드 안에서 여성들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블루진이나 팬츠를 즐겨 입었고,⁶³⁾ 대학가에는 유니섹스 룩이 크게 인기를 얻어 이것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쳐, 남녀노소, 계급의 구별이 없는 평등의식이 패션으로 표현되게 되었다.⁶⁴⁾

미국 헐리우드 영화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권력을 획득하고 있었으며 스타 역시 대중과 가까워져 아이돌 스타들이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중스타는 사회구조 속에서 생산되며, 또 스타 자신이 대중에게 주는 영향으로 인해 문화적, 사회적 텍스트로서 작용

한다. 대중스타는 현대사회와 동시대 대중의 본질적 성향의 징후로, 스타 자신의 행위와 패션을 통해 그들의 문화의 상징적 가치를 드러낸다.⁶⁵⁾ 〈그림 16〉⁶⁶⁾에서 제임스 딘(James Dean)이 입은 흰 티셔츠는 전세계 젊은이의 반항 문화를 상징하였으며, 〈그림 17〉⁶⁷⁾에서 마론 브란도(Marlon Brando)의 땀에 젖고 찢어진 티셔츠는 남성의 섹시함을 과시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티셔츠는 남성의 변화된 이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남성의 언더웨어, 군인의 유니폼, 노동자의 패션이라는 한계적 범위에서 벗어나 대중의 패션으로 발전하였다.⁶⁸⁾



〈그림 18〉 미국식 남녀 캐주얼 웨어
<http://blog.naver.com/>

스타들이 입고 있는 패션은 남녀를 불문하고, 전시대인 모더니즘 시대와 비교하여 많은 부분 대중의 패션과 유사해지고 있었다. 지나치게 화려하고 부유한 대중과는 멀리 떨어진 상류층의 스타의 이미지는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대중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었으며, 주로 티셔츠 등 평범한 아이템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이다. 권력의 주체가 상류층에서 중류층인 다수의 대중에게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만큼 문화권력의 주체의 하나인 스타의 패션 역시 대중적 기성복으로 전환되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5) 스포츠, 캐주얼의 대중화

기성복의 발달과 함께 캐주얼과 스포츠 웨어의 대중화를 가져왔다. 모더니즘 시대에는 스포츠 웨어가 단지 스포츠를 할 때 입는 유니폼과 같은 역할에 불과하였지만, 이 시기에 이르러 사람들은 일상생활에도 캐주얼을 입기 시작하였으며, 스포츠 웨어와 캐주얼 웨어를 겸용해 자유로이 입기 시작하였다. 특히 60년대 영 패션 붐을 타고 미국의 단순하고 편안한 스포츠웨어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으며 70년대 이후 Calvin Klein, Ralph Lauren, Perry Ellis, Lis Claiborne, Donna Karan 등의 미국 디자이너들로 인해 급속도로 발전되었다. 이들의 디자인은 과거의 오토 꾸트르와는 상이한 기능성을 겸비한 편안함을 지향하는 캐주얼한 디자인임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은 미국의 거대 권력과 그들의 사상인 평등, 대

중성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패션의 주체가 되어갔다.

이러한 움직임은 T.P.O의 격식과 구분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격식의 경계의 고정관념이 약화되기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격식을 갖추어 입어야 했던 직장에서의 복장이 서서히 자유로워졌으며, 공식적인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의 패션의 구분이 어느 정도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정장과 캐주얼의 믹스, 스포티한 정장 등 어느 정도 자유로운 코디가 가능해졌으며, 스포츠를 할 때에만 착용하였던 스포츠 웨어가 캐주얼과 믹스되면서 액티브 스포츠라는 기존의 스포츠 웨어의 의미를 가지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였다. 또한 젊은층에서의 캐주얼웨어는 중장년층에게까지 확산되어 더욱 대중화를 이루어낸다(그림 18)⁶⁹⁾.

3. 뉴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변화

포스트모더니즘의 발전과정에서 21세기의 뉴미디어 시대에 이르러서는 권력의 중심에 정보와 인터넷이 위치해 있다. 정보란 과거에 교육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절대적 지식의 형태가 아닌 상호 교환이 가능하고 변화되어지고 능동적으로 참여되어지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즉 정보는 그저 교육받고 획득되어지는 수동적 형태를 넘어 스스로 창조하고 같이 참여하는 상호 작용성의 특성을 갖고 있다. 미디어와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전 세계는 동시성을 띠며 정

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에 중심에는 인터넷이 위치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국가라는 개념을 이제 지리적 위치를 표시하는 개념으로 이제 세계는 모두 다국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강대국과 약소국은 여전히 존재하나, 개인의 능력에 따라 국가적 울타리를 벗어나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이다.

이 시대에는 주류와 비주류, 트렌드와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의 공존과 융합하고 있는 퓨전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local과 global이 합쳐진 Mixed culture안에서의 자신의 색 찾기가 일어난다. 여기서의 자신의 색 또한 문화와 국가의 색보다는 개인의 선택과 취향에 의존한다. 즉 인종적 특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의 폭 안에서 자신의 아비투스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다국적 다문화의 패션이 나타나고 있다. 이 시대에는 계층도 인종도 성별도, 연령도, 아닌 개인이 종약령도시대이다. 이러한 개인은 다양한 취향공동체에 속도 인있으며 그 안에서 개인의 취향에 따른 선택을 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저항을 시작한 다양한 하위문화들은 이제 자신의 색을 찾아 당당히 공존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신의 취향에 따라 다양성 안에서 선택을 하고 있다. 뉴미디어 사회에는 개인의 취향과 가치에 따라 선택의 폭이 달라진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을 만큼 21세기에는 다양한 트렌드가 공존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패션이 연출되어진다. 개인들은 다만 자신의 취향대로 선택을 하고 있으며, 개인주의가 팽배한 개인중심의 사회이며, 다양한 권력층이 존재하는 다권력시대의 도래인 것이다.

뉴미디어 시대에는 연령 제한이 없어지게 되면서 노인과 어린아이, 성인이 모두 같이 공유하는 시대이며, 기성세대인 대중이 아닌 실버, 골드 미스, 뉴 키즈도 자신들의 영역을 확보하였으며 아주 새로운 연령층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적 캐릭터도 나타나 이 시기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스타는 과거의 스타에서 그 폭을 더욱 넓혀 이제는 연예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스타가 탄생한다. 스포츠 스타, 정치, 경제인들을 불문하고 패션에 관심이 있으며, 대

중에게 영향을 끼치며, 매체에 노출이 많은 이들은 패셔니스타의 반열에 오르며, 문화권력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개인이 중요시 되면서, 일률적인 트렌드의 답습이나 대중적인 모드의 반복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실루엣과 디테일이 중심이 되는 스타일 뿐 아니라, 가격, 브랜드, 착장 방식에 까지 개인의 취향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고 있다. 다양한 문화권력 주체에 따른 다양한 패션이 공존하며, 특히 메스티지, 온라인 패션 등의 패스트 패션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패션은 이제 고가와 저가가 모두 공존하면서 개인들의 차에 따라 선택을 받으며,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중저가 이면서도 명품을 지향하는 이른바 Massitige 브랜드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할 만큼 너무나도 다양한 아이템이 공존하며, 자신이 선택한 취향공동체 안에서 가치 지향적 소비를 즐긴다. 이는 취향공동체 안에서의 동일한 코드의 선호로 나타나지며, 이것은 하나의 그들끼리의 암호로써 동료의식을 강화시킴으로 21세기의 과시적 소비를 부추긴다. 즉 서로 이해되는 문화 코드로써 이는 같은 선호 브랜드 상품, 아이템, 로고 등을 공유함으로써 그들의 집단적의식을 강화하는데, 이는 그들만의 코드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들간의 결속과 같은 부류라는 동질감을 확고히 한다. 이는 과거의 상류층의 화려한 패션을 통한 다른 계층과의 차별화, 자기들끼리의 동질화를 유도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의 새로운 형태의 과시적 소비이다.

그리고 뉴미디어 시대에 이르러 성별의 차이는 이제 권력과 비권력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단지 성의 차이임 그러나 동등한 위치에 있는 단지 다른 성일뿐임을 인정하였다. 남성적, 여성적 아이템은 이제 그저 개인의 선택일 뿐이라는 것이다. 남성적, 여성적 취향은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모두 적용되어, 메스쿨린, 페미닌, 메트로 섹시 룩을 공존하게 하며, 성의 개념이 없는 앤드로지너스 룩 또한 선택을 기다린다. 여성은 동등하기를 주장한 페미니즘적 과거의 시각을 초월해 이제 자신들의 고유함을 지향한다. 이는 패션에서는 남성적 아이템은 남입과 모사로부

터 더욱 여성스럽게 변화시켜 자신만의 색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감히 남성들의 접근을 차단한다. 이를 차이의 페미니즘, 즉 피메일리즘이라 한다. 남성들 역시 고정적인 슈트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절제되었던 많은 유희적인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아름다운 남자, 꾸미는 남자는 이제 비웃음의 표상이 아니라 꽃미남이라는 트렌드와 함께 남성에게도 이다. 자유이다. 즉 남성스런 남성이든, 여성스런 남성이든 또한 남성스러운 여성이든, 여성스러운 여성이든 이것은 시대가 정해주는 옳고 그름의 맥락이 아닌 철저각을 초 공존하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아닌 철저각다양한 영역사이의 벽은 쉽게 통합되고 융합되어 복합적인 하이브리드 문화가 많은 분야에서 쉽게 발견되며, 이러한 하이브리드 문화와 상호 교류가 가능한 정보, 어디서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연락이 가능한 여러 미디어의 발전 등으로 인한 새로운 직업군인 잠노마드의 등장, 그리고 이들의 자유로운 작업 환경과 직장이라는 고정적 관념을 벗어난 자유로운 이지패션으로 등장하고 있다.

4. 소결

20세기후반으로 넘어오면서 권력은 미국에 집중되었고 유행 역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강대국의 권력을 표방하였다. 이 시기는 대량화, 기계화로 인한 프

레타 포르테의 시대이며, 미국적 대중문화의 시기이다. 경제적 발달과 대중적 소비문화는 권력층의 구조를 상류층에서 중류층으로 이동하게 하였으며 다양한 하위문화 계급이 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상징폭력은 대중매체와 교육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되었으며 정당화되었다. 이러한 편파적 문화 현상은 패션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국의 기성복인 청바지와 티셔츠가 대중적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대중문화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적 경쟁체제에 의해 수많은 브랜드가 탄생하였으며, 이들은 타겟층을 차별화하며 제품을 생산하고, 이러한 타겟층의 차이는 결국 가격과 품질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즉 대중적 트렌드를 모두 반영해 같은 스타일의 패션을 계층, 인종,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착용하고 있는 듯 보이나, 결국에는 경제적 권력에 보다 집중되어있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 있어서 이들은 권력의 특성에 따라 가격의 차이를 가진다.

또한 락, 펑크, 힙합 등의 음악의 영향과 남녀평등, 제3세계 등 다양한 하위문화그룹은 그들의 패션을 통해 저항적 가치를 메시지로 표현하였다. 하위문화 계급의 다양한 패션은 지배적인 매스미디어와 문화 사업을 통해 재빨리 상품화되어 대중 청소년과 하이패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확산시키게 된다.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는 행동의 표출로 이해되었던 청소년

<표 2>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의 문화권력 주체와 패션

관점	권력의 주체 (메이저)	권력의 주체 (마이너)	패션 (메이저)	패션 (마이너)
사회계층	중류층	상류층 하위문화계층) (락, 펑크 힙합) 아이돌 스타	기성복	오트 꾸트르 모즈, 펑크 힙합
인종	백인	제3세계문화 (일본, 중국, 중동의 아시아)	기성복	오리엔탈리즘 (다중문화 패션)
성별	남성	남녀 평등의 확산	기성복	여성패션의 변화 (미니쉬룩, 유니섹스)
연령	기성세대	영과위의 대두	기성복	캐주얼 패션 유니섹스 패션
T.P.O	Formal, Informal의 고정관념 와해	Formal, Informal의 고정관념 와해	스포츠, 캐주얼의 대중화	스포츠, 캐주얼의 대중화

들만의 문화와 패션이 디자이너들에게 영향을 미쳐, 상류층의 컬렉션으로 저항의 의미로써의 표현이 아닌 패션 스타일로써 재생산되었고 확산되었다.

다음의 <표 2>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의 문화권력 주체와 패션에 관한 정리를 나타낸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는 메이저 문화권력과 마이너 문화권력이 존재하였던 시기로 메이저로는 미국식 기성복을, 마이너로는 다양한 하위문화계급의 다양한 패션이 등장, 저항하고 있는 시기로 파악하였다. 확산 역시 두가지의 성향으로 전파되는데, 이는 메이저 문화권력인 미국식 기성복과 캐주얼의 대대적 전파로 이를 각자의 계층 내에서 전파가 이루어지는 수평전파를 적용시켰으며, 마이너 문화권력 주체인 다양한 하위문화계급에서의 스트리트 패션은 하류층에서부터의 상향전파의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다음의 <표 3>은 뉴미디어 사회의 문화권력 주체와 패션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보여지듯 뉴미디어 사회는 정보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동시다발적이며, 공식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는 거시적 시점에서 다국적 현상으로 연결된다. 또한 개인이 중요해진 시대이며, 개인이 문화권력을 획득한 시대로, 개인의 취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사회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문화권력 주체의 공존에 따른 다양한 계층의 패션의 공존 즉 오트 꾸트르, 프레타 포르테, 메스티지, 온라인패션을 포함한 패스트 패션 등의 공존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가치 지향적 소비는 자신의 속한 취향 공동체 안에서의 코드의 교환 등으로 21세기적 과시적 소비가 일어나게

하는 원이니 되었으며, 취향적 선택은 성별에도 적용되어, 페미닌, 메스퀼린뿐 아니라 메트로 섹슈얼, 앤드로지너스 룩을 공존하게 한다. 또한 문화권력주체의 분산화는 다양한 새로운 연령층의 대두로 이어져, 실버, 골드미스, 뉴키즈 등의 새로운 연령층의 부각과 연령층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공간의 캐릭터에게까지 문화권력을 부여한다. 또한 하이브리드 문화는 T.P.O의 개념을 붕괴하여, 직장과 가정의 공간구분이 없는 자유스러운 이지 패션의 착용을 가져왔으며, 듀얼리즘적 문화로 인해 하나로 다양한 코드가 개인적 취향에 따라 이루어지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IV. 결론

패션은 문화 트렌드로 권력층에 의해 끊임없이 생성되고, 시대의 미의 상징으로 의미 지어지고, 대중에게 확산된다. 사회에서의 문화 모델은 그 시대 권력층의 이상형을 대변하며,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변화한다. 역사적으로 사회의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권력은 권력층을 바꾸어 이동하였으며, 권력층이 이동함에 따라 패션도 변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문화권력의 주체를 살펴보고, 권력과 주체의 변화가 패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지나간 역사를 통해 미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패션 현상의 사회적 관계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트 꾸트르와 형식적인 남성적 슈트를 지향하던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된 모더니즘 시대에서,

<표 3> 뉴미디어 사회의 문화권력 주체와 패션

관점	권력의 주체	패션
사회계층	성가에 의한 계층 다양한 계층의 문화권력 주체의 공존	오트 꾸트르, 프레타 포르테, 메스티지, 온라인 패션을 포함한 패스트 패션
인종	다국적, 다문화의 가치지향적 소비	가치 지향적 소비에 따른 취향공동체들의 다양한 패션
성별	양성의 확실한 구분과 모호한 경계의 공존	메스퀼린, 페미닌, 메트로 섹슈얼, 앤드 로지너스 등 다양한 패션
연령	다양한 연령의 문화권력주체의 공존과 상호작용성, 문화권력 주체의 분산화	Silver, Gold Miss, New Kiz zone 등의 패션 개인이 만들어가는 가상공간의 캐릭터 패션
T.P.O	하이브리드 문화 듀얼리즘(dualism)	T.P.O의 개면 해체의 이지(easy)패션 자율성이 가져온 취향적 코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로 들어오면서 미국이 권력의 중심이 되었으며, 미국의 평등의식과 대중적 부의 확산으로 기성복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었고, 포스트모더니즘의 발전으로 파악한 뉴미디어 사회에 들어와 다양한 하위문화가 문화권력을 획득하면서 다국적 성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둘째 미시적 관점에서, 모더니즘 시대에는 개인 중 상류층, 백인, 남성, 기득권층이 문화권력의 주체였으며, 이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경우에도 상류층에서 중류층인 경제적 여유소득을 지닌 대중으로 이동하였으나, 서양, 남성, 백인이 권력의 중심에 있었으나 여성, 영과워, 제3세계 등 마이너 권력으로 등장하였고, 이는 뉴미디어 사회에 이르러 모두가 문화권력을 가질 수 있는 개방된 구조로 발전하였다. 즉 어떤 계층이 문화권력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그가 누구든 문화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시기로서 과거의 계층과 인종, 성별, 연령, T.P.O.의 개념은 개인의 취향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패션 역시 다양한 스타일이 서로 경쟁하고 융합하면서 공존하고 있다.

셋째, 모더니즘시대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발전하면서 상류층, 남성, 기득권층의 세력이 중심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다른 마이너 문화권력 주체가 떠올라 그 폭이 넓어지고 있었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권력은 상류층, 백인, 남성, 기득권층, 스타에서 중류층, 여성, 영과워, 제3세계로 확장되기 시작하여, 뉴미디어 사회에 가서는 더욱 넓어져 개인을 중심으로 아주 다양한 집단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권력 주체에 따른 패션은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오프 꾸트르와 남성의 테일러 슈트,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는 기성복이 메이지 패션으로 새로이 권력을 획득함과 함께 전 시대의 오프 꾸트르와 다양한 하위문화의 패션을 마이너로 등장하며, 뉴미디어 사회에서는 다국적 패션과 문화권력의 분산화로 인한 다양한 문화권력층의 공존과 개인의 취향이 중심이 된 취향 선택의 패션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문화권력과 패션의 발전은 역사의 흐름과 함께 서서히 변화하였던 만큼 21세기를 통하여 더욱 다양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뉴미디어 사회에서 우리나라는 패션의 강국으로써의 역할이 점점 더 커져가고, 이러한 영향력은 우리나라 패션이 하나의 문화권력의 주체로써, 다양한 문화 안에서의 공존하고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패션이 국가와 개인의 양 측면에서 과거의 종속적, 하위문화적 입지에서 선도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시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 1) 김민자 (1998a).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 I. 복식, 37.
김민자 (1998b).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 II. 복식, 38.
- 2) 문신애 (2004).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표현된 패치워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박은경 (2001). 20세기 테크놀로지 패션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봉덕 (2002).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최호정 (2007). 현대패션에 나타난 글로벌·구조적 하이브리드: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복식 문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이민선 (2006). 권력구조가 복식의 성적표현에 미치는 영향. 복식, 56(5).
이민선 (2003). 권력과 남성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 복식문화연구, 11(2).
- 6) 안선경 (2001). 한국적 복식문화의 현대성에 나타난 미국화와 규율권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7) 김민자 (2004). 복식미학 강의 2. 서울: 교문사, p. 212.
- 8) 양운덕 (2007). 미셀 푸코. 파주: 살림출판사, p. 13.
- 9) 위의 책, p. 56.
- 10) 이민선 (2001). 남성 패션에 표현된 다중 문화. 복식, 51(7), p. 22.
- 11) 강명구 (1996). 소비대중문화와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민음사, pp. 24-25.
- 12) 최경희 (2007). 19세기 후반 이후 주류패션과 반패션에 표현된 성의 다원화에 관한 맥락적 연구. 복식, 57(5), p. 168.
- 13) 김정선, 김민자 (2001). 빅토리아시대 유행복식과 반유행복식 운동에 관한 여성성과 인체미에 관한 연구 (I). 복식, 51(2), p. 172.
- 14) Edward Fuchs (1912). *Illustrierte Sittengeschichte Vom Mittelalter Bis Zur Gegenwart: Das Burgerliche Zeitalter* 이기웅·박종만 역 (1991). 풍속의 역사 IV. 서울: 까치.
- 15) 위의 책, p. 17.
- 16) 이민선 (2006). 앞의 책, p. 96.
- 17) 이경희 (2001). 20세기의 모드. 서울: 교학연구사, p. 43.

- 18) J. Anderson Black, Madge Garland (1980). *A History of Fashion*. 윤길순 역 (1997). *세계 패션사 2*. 서울: 도서출판 자작 아카데미, p. 150.
- 19) Elizabeth Wilson Lou Taylor (1989). *Through the Looking Glass*. London: BBC Books, pp. 17-18.
- 20) 최셋별, 진기남 (2007). 문화사회학적 시각에서 본 패션의 전략적 사용. *복식*, 31(9/10), p. 25.
- 21) 성수광 (1997). *의류학개론*. 서울: 교문사, p. 46.
- 22) 송영경, 임영자 (2007). 1930년대 할리우드 영화의상의 패션이미지에 관한 연구. *복식*, 57(9), p. 114.
- 23) 이정희 (1997). 영화예술에 나타난 의상이 유행에 미친 영향-Edith Head의 영화 의상을 중심으로-. *복식*, 31, p. 152.
- 24) 송영경, 임영자. *앞의 책*, p. 118.
- 25) 최경희. *앞의 책*, p. 170.
- 26) 김정선, 김민자. *앞의 책*, p. 173.
- 27) 이민선 (2003). *앞의 책*, p. 183.
- 28) 이민선 (2001). *앞의 책*, p. 22.
- 29) 송수원 (2008). *영국·미국 패션의 문화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03.
- 30) 최경희. *앞의 책*, p. 170.
- 31) 송영경, 임영자. *앞의 책*, p. 113.
- 32) 위의 책, p. 97.
- 33) J. M. Robert (1998). *The New Global Era*. 유수아 역 (2007). *히스토리카 세계사 10*, pp. 67-86.
- 34) 송수원. *앞의 책*, p. 196.
- 35) 김창남 (1995). *문화와 문화 실천*. 서울: 한울 아카데미, p. 57.
- 36) 위의 책, p. 176.
- 37)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 38) 정미진, 정홍숙, 김선화 (2002). 락음악의 발전에 따른 스트리트 스타일의 발생과 변천. *복식*, 52(5), p. 178.
- 39) Rouse, E.(1997). *Modern society and Fashion*. 이재한 역 (2003). *현대사회와 패션: 코르셋에서 펑크까지*. 서울: 시지각, pp. 332-371.
- 40) [http://blog.naver.com/damdorang? Redirect=Log&logNo=150045140090](http://blog.naver.com/damdorang?Redirect=Log&logNo=150045140090), 자료검색일: 2009.02.10
- 41) [http://blog.naver.com/rose3413? Redirect=Log&logNo=10043554700](http://blog.naver.com/rose3413?Redirect=Log&logNo=10043554700), 자료검색일: 2009.05.17
- 42) 엄소희 (1995). 청소년 하위문화에 나타난 대중음악과 복식에 관한 연구-197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복식*, 26, p. 104.
- 43) http://imagebingo.naver.com/album/image_view.htm?uid=han0062&bno=5410&nid=1430, 자료검색일: 2008.12.23
- 44) Mablin Jones and Ellen Colon-Lugo (1987). *Getting It On*. NY: Abbeville, p. 139.
- 45) 정홍숙 (2001).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 395, 396.
- 46) 노정심 (1994). *Avant-garde 패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3.
- 47) [http://blog.naver.com/boogie724? Redirect=Log&logNo=40033415774](http://blog.naver.com/boogie724?Redirect=Log&logNo=40033415774)
- 48) 이민선 (2001). *앞의 책*, p. 30.
- 49) 금기숙, 김민자, 김영인, 김윤희, 박명희, 박민여, 배천범, 신혜순, 유혜영, 최해주. (2002). *FASHION 현대 패션 100년*. 서울: 교문사, p. 298.
- 50) 박은주, 은영자 (1999).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연구. *복식*, 43, p. 260.
- 51) 위의 책, p. 260.
- 52) 위의 책, p. 265.
- 53) 위의 책, p. 115.
- 54) J.M. Robert (1998). *The European Empires*. 유수아 역 (2007). *히스토리카 세계사 8*, p. 119.
- 55) 최호정, 하지수 (2005). 우먼파워로 나타나는 최근 패션 스타일에 관한 연구. *복식*, 55(2), p. 137.
- 56) 이민선 (2003). *앞의 책*, p. 187.
- 57) 신상옥 (2006). *서양복식사*. 서울: 대덕문화사, p. 334.
- 58) 최호정, 하지수. *앞의 책*, p. 133.
- 59) 김순자 (2002). 펑크 스타일의 상징적 의미와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 52(6), p. 140.
- 60) 엄소희. *앞의 책*, p. 101.
- 61) 이경희. *앞의 책*, p. 136, 139.
- 62) 위의 책, p. 139.
- 63) Madge Garland (1970). *The Changing form of fashion*. New York: Praeger Inc., p. 127.
- 64) 정성혜 (1990). 일본 패션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 - 198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복식*, 25, p. 220.
- 65) 이정원, 금기숙 (2008). 1960년대 록 스타 패션의 도상학적 해석. *복식*, 58(6), p. 70.
- 66) <http://www.hancutgallery.com/Common/PhotoViewR.aspx?photoID=2060436>, 자료검색일: 2009.04.15
- 67) <http://www.slrcup.net/TwoBox/PageSearchPhoto.aspx?photoID=1079529>, 자료검색일: 2008.11.20
- 68) 정은숙 (2004). 1950-1960년대 남성 영화배우들의 티셔츠 이미지 연구. *복식*, 54(6), p. 92.
- 69) <http://www.blog.naver.com/lordkill847?Redirect=Log&logNo=40054807085>, 자료검색일: 2009. 3. 7